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5.29 (통권401호)



경제이슈

日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비자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

경영노트

혁신의 원천: 양손잡이 조직

사회 트렌드

OECD 행복지수, 한국은 24위

저널 브리프

제3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

洗心錄

시간의 의미

□ 日 국가신용등급 강등

- 22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국가부채 누적 및 재정적자 심화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
 - 신용등급 : 일본 장기 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자국통화표시채권은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조정
 - 강등배경 : 일본은 공공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가 빠르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이 상대적으로 느긋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데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
 - 국가재정문제 : 2011년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는 10.1%, 국가 부채는 230%로, 2012년 말에는 239%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엔화 강세 지속 전망으로 일본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S&P와 무디스의 하반기 추가 강등 가능성도 존재

□ 소비자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

- 5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5로 전월의 104보다 1p 오르며 1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 가계의 소비심리 : 가계의 소비심리는 그리스 발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과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소비지출 전망 등 전반에 걸쳐 개선
 - 소비지출 : 현재경기판단 CSI는 81, 향후경기전망 CSI는 93으로 전월 대비 각각 4p, 3p 상승하여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증가
 - 물가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7%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며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다소 완화
- 5월중 소비자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유럽 등 대외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기대심리가 실물지표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혁신의 원천: 양손잡이 조직¹⁾

- 뛰어난 성공을 거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오류를 범하여 도태되기 쉬움
 - 짐 콜린스는 기업 몰락의 5단계로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위험·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생명이 끝나는 단계’를 제시함
-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 성공을 이루려면 원대한 비전을 품고 혁신적 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양손잡이 조직 설치가 필수
 - 양손잡이 조직은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혁신적 제품을 기획·제작하는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양손잡이 조직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해주고,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사원 보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기존 조직의 관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야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짐

< 애플과 노키아 사례 비교분석 >

내 용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공해 각광받던 바로 그 시점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다음의 혁신적 제품을 기획함 •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이후 아이맥(1997)→아이팟(2001)→아이폰(2007)→아이패드(2010)→아이클라우드(2011) 등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함 • 애플은 새로운 제품과 혁신을 시도할 때 별도의 제품개발 조직을 두고 여러 해의 시간을 들여 제품을 개발함
노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키아는 애플이 2007년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3년 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개발했으나, 아직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사의 피쳐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지하고 현실에 안주 • 블룸버그는 노키아의 쇠락이 주는 3가지 교훈으로 ‘성공에 안주하지 않기’, ‘도전의식 잃지 말기’,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산업 클러스터에 본사를 가까이 위치시키기’를 제시함

1) 본 자료는 이코노미스트의 ‘양손잡이 조직되서 끝없이 혁신하라(2012년 5월 21일)’을 요약정리함

□ OECD 행복지수, 한국은 24위 ²⁾

- 호주 국민들의 행복지수(BLI, better life index)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고용·환경 부문 등에서 점수가 떨어져 하위권인 24위를 기록
 - BLI는 OECD가 세계 36개 국의 주거, 취업, 건강, 교육, 삶의 균형 등 11개 항목을 종합해 점수로 환산한 것임
 - ※ OECD는 지난해부터 GDP를 대신하기 위한 지표로 행복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음. 올해는 34개 회원국에 브라질, 러시아를 더해 총 36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음

- 호주는 각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음
 - 호주인의 연평균 소득은 2만 6927달러로 OECD 평균(2만 2387달러)보다 높았음
 -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72%(OECD 평균 66%)가 일자리를 갖고 있고 평균 기대수명도 82세로 OECD 평균(80세)보다 높았음
 - 노동시간은 연간 1686시간으로 OECD 평균(1749시간)보다 적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주는 철광석·석탄 등 원자재 가격 강세로 유럽발 경제 위기에서도 비껴나 있는 ‘운 좋은 국가’라고 평가

- 반면 한국은 지난해 26위에서 24위로 두 계단 올랐지만 36개 국가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음
 - 학력 수준, 학업 성취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고용, 노동시간, 환경 등에서 낮게 평가됐음
 -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의 63%만 일자리를 갖고 있고, 노동시간은 연간 2193시간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음

- 행복지수 순위는 ① 호주 ② 노르웨이 ③ 미국 ④ 스웨덴 ⑤ 덴마크 ⑥ 캐나다 ⑦ 스위스 ⑧ 네덜란드 ⑨ 뉴질랜드 ⑩ 룩셈부르크 등의 順
 - 일본은 21위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2) “OECD 행복지수, 한국은 24위”(한국경제신문, 2012.5.24)

□ 제3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³⁾

-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최근 저서 ‘제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을 통해 ‘분산형 자본주의’의 등장을 예고
 - 3차 산업혁명이란 그린에너지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합을 기반으로 수평적·협력적·분권적 경제 구조로의 변혁을 의미
 -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공유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를 기반으로 정치·사회·경제변화가 일어날 것
 - 동시에 기존 경제구조에서 중시되었던 대량 생산 경제, 중앙집권적 체제, 거대 금융자본, 사적 소유권 등은 소멸되거나 중요성을 잃게 될 것
-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각 기업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 ① 화석 연료의 20%가 그린 에너지로 대체 :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 보호뿐 아니라 산업 발전과도 관련성이 높으며, 그린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독일의 경우 2010년 관련 분야 일자리가 36만 7400개로 증가
 - ② 대규모 발전소는 미니 발전소로 전환 : 특히 건물은 주요 탄소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만약 건물들이 태양광 등 미니 발전소로 전환되면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
 - ③ 저장기술 배터리의 개발 및 보급 : 건물 등에서 생산·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개발·보급되면 잉여에너지의 낭비가 줄어들 것
 - ④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의 구축 :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잉여에너지의 공유·거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직적·중앙집중적이었던 에너지 권력의 분산 현상이 나타날 것
 - ⑤ 친환경 차량의 확산 :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량의 보급이 확산되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유휴 전기를 거래하는 현상이 일반화될 것

3) ‘한국, 3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촉매·모델 될 수 있어’(서울신문, 2012.05.09) 참조

□ 시간의 의미

우리는 다르게 태어난다. 누구는 달리기에, 누구는 노래 혹은 요리에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타고난 것과 끝없는 노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별개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 분야를 타고난 쪽이 우월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려면 자기의 재능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재능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갈고닦아야만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무엇을 타고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무감각해 지는 경향이 있다. 헬렌 니어링의 「인생의 황혼에서」라는 저서에서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찬 아이들처럼 계속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굳어지기 쉽다. 더불어 호기심도 사라지게 된다. 자기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감각에 몰두하는 것, 과거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아이처럼 살아가는 비결이고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알렉스 파타코스의 「무엇이 내 인생을 만드는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하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매 순간 의미가 있다.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의미에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무한정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각자의 타고난 재능을 찾고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이처럼 호기심을 많이 가질수록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시간은 그 시간을 쓰는 개개인마다 의미가 다른 것이다.